

#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영향 : 한·중·일의 상황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되어 간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해외에서도 경제 봉쇄 등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도 1998년 IMF 경제위기에 비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 받다 보니 여성 고용률 하락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 보아도 대면 서비스 직업군에 속하는 서비스 근로자 및 판매 근로자에게서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취업자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 또한 대면 서비스업에 취업한 비중이 아무래도 고졸 취업자에게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아도 취약한 쪽에서 좀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가장 큰 상태인데, 취업상태는 유지되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일시휴직자도 임시직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크게 충격을 입은 종사상 지위는 임시직 근로자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다른 위기와 달리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이번 위기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라는 특성상 조업단축으로 견디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과 중국 노동시장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을 다루는 기획특집 원고를 소

개하고 있다. 밀접한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계되어 경제적으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긴밀한 국가들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 지면에서 단발적으로 소개하는 것 이상은 국내에서 자세히 소개된 바가 없다. 이에 이번 기획특집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상황을 소개하게 되었다.

이를 보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코로나 19 확산이 일본 고용·노동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2020년 4월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고용유지 지원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으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잔업 감축, 휴일 확대, 일시휴직, 일시귀휴 등)을 통한 대응의 영향으로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소정의 급여는 전년동월 대비 26.3% 감소해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8월에도 14.0%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노동시간은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직종별로는 영업·판매직과 서비스직, 성별로는 여성, 고용형태로는 비정규직, 임금수준으로는 저임금 근로층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긴급사태 종료 이후 회복기에서조차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의 소정노동시간 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가 중국 유연고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따르면 임시직·파트타임·계절적 고용·용역·파견·외주 노동자 등 유연고용 인력의 취업기회가 감소했다. 채용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부 핵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식 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아 해고되지 않지만, 파견직이나 임시직 등 유연고용 인력은 코로나19 기간 취업기회가 크게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실업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은 빠르게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역유입 가능성이 커져 일부 지역 중심으로 여전히 엄격한 방역·통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질서의 조속한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국 국내관광, 요식업, 숙박업 등 비교적 큰 타격을 입었던 서비스업 종이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국관광연구원(中國旅游研究院)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국경절과 중추절 8일 연휴 기간의 중국 국내관광객 규모는 총 6억 3,700만 명으로 전년대비 79% 회복했고, 국내관광 매출은 4,665억 6천만 위안(한화 약 77조 8,4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9% 회복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유연고용 인력이 기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취업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실업에 직면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동북아 3개국 노동시장에 비슷한 양상의 충격을 주고 있다. 비정규직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지는 취업집단에서 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회복이 나타나더라도 이들 취업집단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획특집 원고들은 그동안 상세하게 접할 수 없었던 일본과 중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원고들로 구성되었다. 농민공의 어려움 같은 중국 노동시장에 고유한 취약부문의 어려움, 그럼에도 배달 등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부분적으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상쇄하는 모습이 라든지 대학생의 신규실업이 급증하는 현상, 앞서 요약했듯이 유연고용 인력에게 더욱 집중된 피해 등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정책 대응의 측면에서도 임시공익적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한 사회보험료 환급과 감면 정책 같은 유사한 정책 대응을 엿볼 수 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원고와 특히 여성에게서 부정적 충격이 컸음을 감안해 좀 더 자세히 여성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룬 기획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상처를 크게 남기고 있지만, 한가지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유연근무의 확산이다. 특히 재택근로 확산이 일·가정의 양립, 일과 개인 생활의 양립이란 차원에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재택근로 경험이 크게 확산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활용 경험자는 2020년 8월까지 근로자 중 14.2%로 전년대비 3.8%p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이 재택 및 원격근무 경험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주로 재택이 가능한 직업군과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택근로 실시 경험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향후 활용을 바라는 수요도 그에 못지

않게 크게 증가해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급격히 재택근로 사용 비율이 축소되고 있어 향후 재택근로가 근로 방식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 처방으로 재택근로가 자리를 잡으려면 보수체계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보수가 아닌 성과나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로의 변화, 개개인의 직무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과 같은 근로 방식 전반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재택근로가 이미 상당 부분 근로의 일부로 자리 잡은 서구와 달리 국내에서의 확산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기존의 일하는 방식, 보상받는 방식이 얼마나 크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이미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며, 아마도 반년 이상 이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감염병 예방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이란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다른 위기에 비해 훨씬 크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동북아 국가들도 공히 경험해 온 정책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특집을 통해 우리 옆 두 나라의 상황을 깊이 있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